

yeong yang

WEB CONTENTS

가장 
자연적인
영양

2024년 05월 02일 14시 08분

ë©ì°	2
자유게시판	3
정품미국산시알리스복용 후기 처방전필요없이	3

정품미국산시알리스복용 후기 처방전필요없이

작성일 2024.04.01 09:00

등록자 별빛

조회수 36

정품24사랑성인약국

♡제품 1+1 사은품♡♡편한 상담

사랑성인약국 : saw63.com

♡고객님 정보 보호♡♡출발배송♡

정품보장약국 : saw63.com

♡투명한 가격♡♡전국 무료배송♡

일위사이트 : saw63.com

시알리스 효과

시알리스는 타다라필 성분의 발기부전 치료제 입니다.비아그라 보다와 똑같은 발기부전 치료제 이지 성분이 다릅니다.약효과는 30분 이내에 나타나며 지속시간은 24~36시간 정도 입니다. 일회성 용법이나 저용량 용법을 통해서 각각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 있으며 저용량 용법으로 비아그라 등과 섞어서 사용하신다면 부작용 없이 꾸준히 효과를 보실수 있습니다.제네릭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한 효과를 보실수 있습니다. 제네릭 제품 역시 인증을 통해 나온 약품이기 때문에 효과는 거의 똑같습니다.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과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복용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알츠하이머 발병 비율을 조사해 비교한 결과입니다.

8일(각 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의 루스 브라우어 박사 연구진은 7일 미국신경학회 학술지 '신경학'(Neurology)에 게재된 연구에서 "26만명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이 약(발기부전 치료제)을 먹는 남성은 치매를 유발하는 질환(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18%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발기부전 치료제가 환자의 뇌에 축적되는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공격하는 것을 발견했다며 이는 알츠하이머병 치료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ADVERTISEMENT

관리만 잘하면 90세까지도 성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다만 필요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노화로 인한 발기부전을 치료할 의약품입니다.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는 오랫동안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을 양분해왔습니다. 둘 중 어느 게 더 효과가 좋을까요?

발기부전 치료제로 유명한 건 비아그라와 시알리스입니다. 두 약의 성분은 각각 실데나필과 타다라필로 수많은 복제약이 생겼음에도 해당 성분의 발기부전 치료제는 여전히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로 불립니다. 약리 기전은 포스포디에스테라제-5(PDE-5) 억제제입니다. 혈관의 산화질소 작용을 강화해 음경으로의 혈류를 증가시켜 발기부전을 치료합니다.

두 약의 가장 큰 차이는 약효 지속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아그라는 4~8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반면 시알리스는 24~36시간 지속됩니다. 약효 발현 시간은 비아그라가 30~60분, 시알리스가 30~40분으로 비슷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비아그라의 조금 더 빠르다고 합니다. 처방 시 비아그라는 성관계 15분~40분, 시알리스는 1~2시간 전 복용이 권장됩니다.

다양한 약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기부전 약의 대명사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입니다 비아그라는 1998년도에 발기부전 치료 분야에 한 획을 그은 획기적인 일대의 사건으로 항생제나 아스피린 개발과 맞먹을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약인데도 이런 비아그라를 제대로 복용하기 위해서는 용량과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18세~64세 사이의 성인에게 권장되는 비아그라 용량은 50mg으로 약물의 효과와 내약성 정도에 따라 100mg까지 늘릴 수 있으며 65세 이상이라면 25mg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적인 복용 시간은 본인이 정한 기준에 따라 1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약효는 대략 4시간 정도이지만 개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비아그라 약효를 높이기 위해서는 음식과 음주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날 섭취하는 음식에 영향을 받는데 특히 지방 성분을 과다섭취하게 되면 비아그라 성분이

이메일주소(www.yyg.go.kr)

지방과 결합하여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유로 식사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가장 좋은 것은 공복상태에서 복용하는 겁니다. 음주 또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알코올의 진정효과에 의해 약물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제대로 된 약효를 보기 위해서는 가급적 술과 함께 약물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목록](#)[수정](#)[삭제](#)[글쓰기](#)

Copyright © **Yeongyang-gun** . All Rights Reserved.

Yeong Yang
WEB CONTENTS

